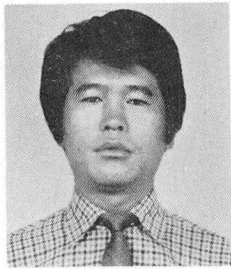


종돈 수출 전망



왕 기 창
(대현농장 대표)

양돈경기가 불황의 늪으로 깊숙히 빠져들고 있고, 종돈업계도 지난 해의 활발했던 사업과는 달리 깊은 침체가 예측되고 있다.

보다 많은 노력과 슬기로운 대처로 양돈가족 제위의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움을 딛고 극복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양돈산업이 알뜰히 뿌리내리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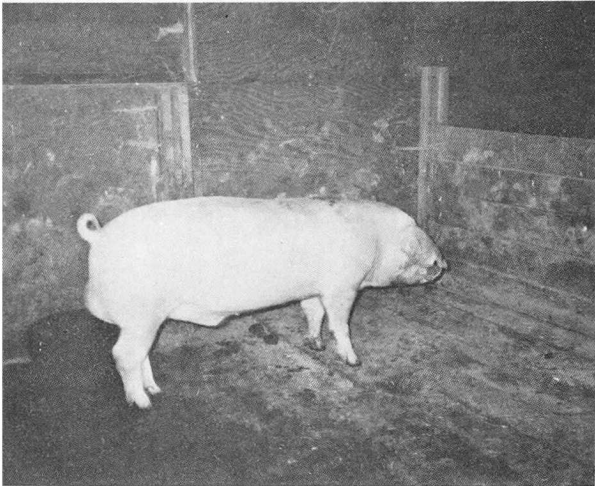
종돈의 수출이라는 명제를 놓고 그 전망을 이야기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으나, 두 차례에 걸쳐 수출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 농장이 종돈의 수출과 연관을 맺게 된 것은 지난 해 봄의 일이었다.

일본 양돈업계 인사 몇 분이 농장을 방문하여 종돈을 살펴본 후 종돈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뜻하지 않았던 종돈 수출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첫번째 수출은 지난 해 5월에 이루어졌는데,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보람이 컸던 반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될 농장들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과 수출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다.

종돈을 수입해 갈 농장측에서 종돈을 선발한 것이 수출하기 3개월쯤 전의 일이고, 아직 일본에 우리나라가 종돈 수입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를 인정받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또 종돈의 혈통에 대한 인정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3~4대(代)에 이르는 선조들에 대한 계보를 확인시켜 주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다. 이후의 수출에 대하여는 이와같은 애로는 반복되지 않겠지만 농림수산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의 관계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자칫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뻔했다. 수출 2개월 전에 국립동물검역소에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소의 결정에 따라 검역이 실시되는데, 농장에 타소(他所)를 설치하여



검역소내의 검역시설이
축종별로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마사를 검역
돈사로 이용 하기도

수출 대상돈을 격리 수용하여 검역을 받게 된다. 검역과정에서 혈청검사에 의해 오제스키 병 및 제반 질병의 감염여부와 투베르클린 반응에 의한 결핵 감염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13종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병이 과거 1년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며, 출국하기 전에 검역소에서 7일간 검역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검역필증이 발급되어 선적서류에 첨부되게 된다. 제반 서류처리가 완료되면 종돈을 선적하여야 하며 Wooden Box를 사전에 항공사와 협의에 의해 제작하여 종돈을 싣고 공항으로 운송하여야 하는데, 이때 Wooden Box의 규격과 차량의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통운 만이 종돈이 든 Wooden Box를 차질없이 기내에 적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검역과정에서 불편을 느꼈던 점은 검역소내의 검역시설이 축종별로 축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두 번의 수출과정에서 공히 마사를 검역돈사로 이용해야 했던 점과, 수출국과 수입국의 위생조건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시약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온다는 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점차 고쳐 나가야 할 점으로 남아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종돈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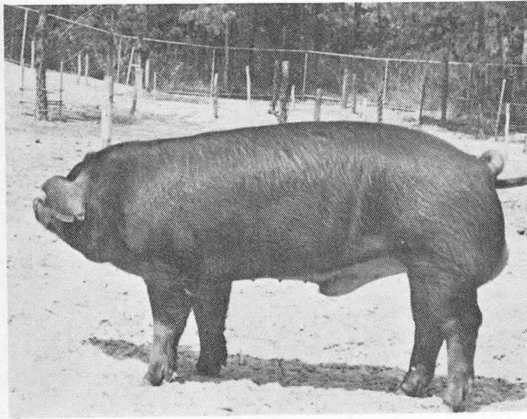
일본 양돈업계의 의구심은, 수출돈이 일본에도착된 후에 그 반응이 매우 좋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뿐만아니라, 애지현 농업협동조합, 일본양돈협회에서 우리 농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고, 30여명의 회원과 관계자들이 농장을 돌아보고 갔으며, 이에 대한 평이 좋아 군마현으로 2차 수출이 추진되었다.

지난 1월 20일에 수출한 종돈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두 차례의 수출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지난 1월 29일에 3차 수출 대상돈 선발이 있었고 4~5월중 또 한 차례 수출이 예상된다.

우리 종돈에 대한 일본에서의 평가는 지체가 강건하고, 골격의 이행과 부위별 발달상태가 매우 좋으며, 체형이 균질화 되어 있는 점과 수컷은 산육성에, 암컷은 번식성에 적합한 체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국내의 관심있는 종돈장과의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종돈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1973년부터 1983년에 걸쳐 8,700여두의 종돈이 수입되었으며(미국 : 4,355두, 일본 : 1,741두, 캐나다 : 1,058두, 스웨덴 : 611두, 대만 : 428두, 호주 : 127두 등), 이들이 주로 각 종돈장의



기초돈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돈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외화의 지출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입에 의존하는 종돈개량의 그릇된 관행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종돈의 수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수입은 수출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많은 종돈이 각국으로부터 도입되어 국내 종돈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적 소인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수입된 종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불식되지 않고는 국내의 종돈산업이 발전해 가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종돈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종돈 수출을 육성하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의 경우, 해외의 종돈 바이어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종돈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실제로 종돈 수출에 많은 몫을 해 내 고 있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나 한국종축개량협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국내의 종돈업 육성과 종돈개량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종돈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종돈 산업을 육성
하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적 뒷 받침이 수반 되어야.**

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해 봄직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일반 양돈업에서도 마찬가지겠으나 종돈업에서의 방역관리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요즘 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제스키병의 국내 발병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뒤늦은 아쉬움이 남게 되며, 이와같은 문제점의 재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돈육의 수출에 있어서 우리의 양돈업계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돈육의 육질에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는 종돈의 개량방향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기존의 등지방 두께를 위주로 하던 육질의 평가방법으로부터 로스 단면적, 마블링 상태, 육색 지방의 경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공육의 생산에 적합하고 등급이 높은 부위의 식육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규격화된 육돈 생산체계에 알맞는 종돈개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어느 종돈은 몇 점이고 어느 종돈은 몇 점이라는 식의 평가방법보다는, 몇 점 이상은 A급으로, 몇 점 이상은 B급으로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내 종돈의 수준에 적합하게 설정하고, 그 등급 범위 내에서 특징있는 장점에 따라 혹은 등지방이 얇은 A

급 종돈이라든가, 체장이 길고 중구(中軀)의 발달이 좋은 A급 종돈 등으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일본의 경우, 실제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종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적에 대한 A급 종돈에 대하여, 체형의 좋고 나쁨에 따라 또한, 자기 농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고려하여 종돈을 선발하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종돈의 수출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 종돈업의 육성·발전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요약해 본다면, 우선 각 종돈장의 노력을 가속화 시켜 줄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없는 순조로운 종돈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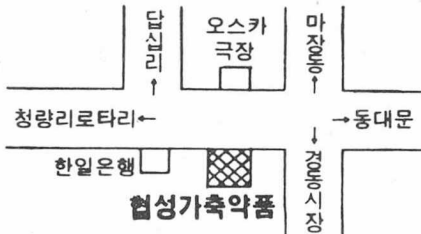
겠고, 둘째로 질병에 대한 청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셋째로 종돈의 개량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앞으로의 종돈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종돈이 생산되어야 하며, 끝으로 국내 종돈시장에서 우리의 종돈이 푸대접 받지 않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리라 본다.

전반적인 종돈의 추세로 보아 로스의 생산량이 많고 강건하며 특히, 지체가 튼튼하고 충분한 체폭을 갖춘 능력있는 종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종돈의 개량에 대한 관심과 그 노력은 충분히 성숙해가고 있으며, 기술적인 축적도 충분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종돈의 수출이 수입을 압도하고 양돈의 선진국으로 떠오르게 되길 기대해 본다.*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 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계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